

[속보] 끝내 장관고시...국민격앙 '이게 정부냐'

8 민주노총 | 2008.05.29 18:14

[사진2]

[1신/5월29일/18:00/서울시청광장] 주부들 유모차 끌고나와 거리행진중
네티즌모임 회원들 장관고시에 격앙, 서울 총집결 호소
각 대학들 동맹휴업 포함한 장관고시 철회 반광우병, 반이명박투쟁 격화
민주노총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개최 대정부투쟁 방안 모색

이명박 정부가 29일 오후 4시 끝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항의시위에 돌입한 네티즌을 비롯한 광우병쇠고기 범국민대책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3당, 각 대학들, 민주노총 등이 장관고시에 대해 대국민과의 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모임들은 이날 주부들을 중심으로 유모차 항의시위에 들어가 오후 5시55분 현재 서울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거리행진 중이다.

[사진1]

각 대학들도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동맹휴학을 비롯한 직접 행동에 나섰고 1천5백여 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도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반대운동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용인 소재 미국산 쇠고기를 야적한 강동냉동창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긴급 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향 등을 집중논의한다.

[사진3]

오후 6시 현재 서울 시청 주변 일대에는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포진해있다. 특히 서울시청광장으로 진입하는 1호선 5번 출구를 중심으로 플라자호텔 정문 앞 등지에 병력을 배치했다. 방송국을 비롯한 취재진들도 시청광장 한모퉁이에 현장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취재에 나섰다.

[사진3]

이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수십여 명의 주부와 네티즌모임 회원들은 취재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세력들이 퍼트린 '프락치론'에 말려 논쟁이 격화됐던 상황에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했던 일부 네티즌들이 옆사람을 불신하는 눈치다. 그러나 이같은 불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불신과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9일 장관고시가 강행됨에 따라 행안부 관보고시는 6월 2일경 다시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투본회의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투쟁상황 등을 종합해 현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